

# 막걸리 술판으로 변한 노송광장

### '2017 전북 막걸리 대축제'에서 '난장판' 돼... 전주시 주먹구구 행정 전형 보여

전주시의 주먹구구식 행정 실태가 전주시청 노송광장에서 열린 '2017 전북 막걸리 대축제'에서 드러났다.

이번에 축제가 진행된 노송광장은 평소 시민들과 아이들을 위한 공간으로 개방되고 있다. 이 곳은 취사장을 갖추고 있지 않아 음식 조리는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주말인 지난 4~5일 내내 노송광장에서는 술과 음식을 판매하는 난장 형식의 축제가 진행되면서 노송광장의 관리주체인 전주시가 축제의 성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허가를 내줬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7일 전주시 등에 따르면 막걸리축제 조직위원회와 모 신문사가 주최한 이번 행사에서는 20~30여개가 넘는 천막 부스와 함께 시청사 앞에 무대가 설치됐다.

또 시청 주변 인도에는 행사에 참여하러 온 노점상들로 가득했고, 광장에도 축제를 알리는 홍보 현수막을 비롯한 각 부스 이름과 음식 메뉴를 적은 현수막이 즐비했다.

축제에서는 초대 가수 및 각설이 공연도 함께 진행됐다.

이들 간의 축제로 인해 지난 6일 오전까지 광장은 시끄러운 막걸리와 음식 냄새로 뒤덮였는데 주최 측이 부스를 끝바로 철거하지 못해 어수선한 상태였다.



전주시청 앞 노송광장이 지난 4~5일 열린 '2017 전북 막걸리 대축제'에서 설치한 천막들로 뒤덮여 있다.

이처럼 '시민들에게 광장을 돌려주겠다'는 전주시의 취지와는 달리 상업성 짙은 축제로 비춰져 이번 축제 허가가 타당한지를 놓고 시비가 일고 있다.

더군다나 같은 기간 전주종합경기장에서 전주음식과 체험문화관광을 결합한 미식축제의 일환으로 열린 '막

걸리이리랑김치소리랑 축제'와도 비교해봤을 때 축제의 성격이 대조돼 논란의 소지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주시 인후동에 사는 김모(43)씨는 "주말에 시청 근처를 지나가다 우연히 축제를 보게 됐는데 노송광장이 술판으로 변해 한마디로 '난장판'이었다"며 "전주시가 도대체 왜 이런

축제를 허가했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그동안 시민에게 무료로 개방한다는 취지로 신청만 받으면 허가를 해줬다"라며 "이번을 계기로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축제 성격을 파악해 선별 개발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

## 'ICT 스마트 디바이스 전국 공모전' 전주지역 본선 진출 4개팀 선정

KGSH · 네얼간이 · 에이컴퍼니 · 대성 팀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제4회 ICT 스마트 디바이스 전국 공모전'의 전주지역 본선진출 4개팀이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는 이번 공모전은 스마트 디바이스 분야의 우수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시제품 제작과 사업화 지원 등을 통해 관련 산업의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해 매년 열리고 있다.

진흥원은 전주지역 본선 진출작으로 ▲해상구조 하이브리드 디바이스(KGSH팀) ▲다용도 스마트 손소독제(네얼간이팀) ▲층간소음차단기(에이컴퍼니) ▲IoT 양봉시스템(대성) 등 4개 팀을 최종 선정했다.

이들에게는 총 500만원의 상금과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상이 수여됐으며, 오는 22~23일 이틀간 진행되는 본선 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

본선을 통과한 최종 6개의 결선

팀은 오는 12월 1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공모전 결선 평가를 통해 최종 순위를 가리게 된다.

대상작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상(2개 팀)이, 최우수상에는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장상(4개 팀)이 수여된다. 또 총 3,000만원의 상금과 함께 국내외 전시회와 글로벌 데모데이 참가 기회 및 제품 사업화 지원을 받게 된다.

진흥원은 본선대회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전주지역 예산 통과팀의 제안 아이디어의 사업화 전략 수립 및 성과 창출 방안 멘토링 등 비즈니스 아이디어의 고도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KGSH팀의 최승규 학생(한국계입학교 2학년)은 "아이템을 더 보완해 결선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추후 창업으로 이뤄지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김민근 기자

## 전주시, 동절기 노숙인 특별 보호대책 추진

전주시가 본격적인 겨울철을 앞두고 노숙인에 대한 특별 보호 대책을 추진한다.

7일 전주시에 따르면 내년 3월까지 '아웃리치(거리상담)팀'을 꾸리고 전주역과 터미널, 객사, 공원, 오탁대 등 거리 노숙인 활동 예상지역에 대한 현장순찰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주·야간 노숙인 지원 상황실도 운영할 예정이다.

시는 발굴된 거리 노숙인들에 대해서는 노숙인 쉼터와 요양시설 등에 입소하도록 유도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및 푸드마켓 등과 연계해 난방과 먹거리, 생필품 등을 지원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일시적인 지원보다는 자활프로그램 및 주거지원 등을 통해 지역 사회로의 복귀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는 경찰과 소방서, 보건소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응급상황시 긴급의료지원을 실시하는 등 동절기 노숙인 관리 및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동절기에 대비해 노숙인 거주시설에 대한 폭설 및 저온, 동파, 가스, 화재 대책 등 재해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도 실시할 방침이다. /김민근 기자

이와 관련 시는 전주일꾼쉼터와 전주 희망의 쉼터 등 노숙인 쉼터 2개소와 노숙인 요양시설인 전주시민의 집 등 3개 노숙인 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곳에는 현재 6명의 노숙인이 입소해 생활하고 있다. /김민근 기자

## 전주시 공동체 정책포럼 개최

전주시가 이웃과 더불어 사는 전수형 공동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공동체 활동가와 전문가, 시민들과 머리를 맞댔다.

시는 7일 전주시혁신센터에서 현재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수형 공동체의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2017 전주시 공동체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시가 전수형 공동체사업인 운두레공동체 추진 3년차를 맞아 민선 6기 출범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된 공동체 사업의 지난 성과를 되돌아보고, 앞으로 지속가능한 공동체로 나아가길 방향을 토론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민근 기자

## 전주 청년들 좋은 일자리 직접 찾는다

### 시, 청년 구직자 30명 대상 '산단 골목길 투어' 실시

전주시가 청년들과 함께 일하기 좋은 환경을 갖춘 중소기업을 직접 돌아다니며 일자리 찾기에 나선다.

시는 이달부터 청년실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취업을 준비 중인 만 39세 이하 청년 구직자 30명을 대상으로 좋은 일자리를 찾기 위한 산단 골목길 투어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 사업은 기존 중소기업에 대한 청년들의 오해와 선입견을 줄이고, 청년들이 좋은 중소기업과 좋은 일자리를 스스로 찾아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청년들은 일하기 좋은 일자리를 찾고, 중소기업들도 우수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어 '일자리 미스매치'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시는 우선 사업에 참여

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참여의지와 취업에 대한 적극성을 최대한 이끌어내기 위한 집단 상담을 각각 2시간씩 총 3회기에 걸쳐 진행할 계획이다.

집단상담 후에는 주요 취업기술인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작성요령과 면접 대응 중심의 전문 컨설팅을 제공, 청년들이 취업 관련한 주요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특히, 시는 사업 참여 청년들과 함께 전주 제1·2 국가산업단지 등 전주시 산단 골목골목에 위치한 중소기업들을 직접 찾다니며 지역 산업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비전과 희망을 가지고 커 나가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줄 계획이다.

참여한 청년들은 산단 투어를 통해 취업을 희망하는 업체를 발견할 경우

에는 해당 업체 인사담당자와 간담회를 통해 취업에 필요한 자격과 습득 기술 등에 대한 안내도 받게 된다.

이와 관련, 현재 청년실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영세한 중소기업의 도산 위험과 열악한 근무환경, 낮은 임금, 하도급 체제하에서의 낮은 비전 등을 이유로 청년들이 구직을 꺼려하고, 기업들은 구인난 호소하는 미스매치 현상이 고착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시는 이번 산단 골목길 투어를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막연한 불신감으로 취업을 기피하는 청년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중소기업인들이 토로하는 가장 큰 애로사항인 인력난 해소를 도울 계획이다.

시는 이번 산단 골목길 투어를 통해 청년들의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 구인·구직으로 이어져 지역 청년들과 중소기업에도 큰 도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민근 기자

## '건강검진 수기 공모' 전북대병원, 12월 31일까지

전북대학교병원은 7일 종합검진 수검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제1회 건강검진 수기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함께 더 건강하기'를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공모는 종합검진 수검을 통해 질병을 조기발견하거나 조기치료 사례 등을 공유해 건강검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자 마련됐다.

공모는 건강검진을 받은 당사자나 가족을 대상으로 오는 12월 31일까지 진행되며, 접수는 우편, 이메일(cuhhs@cuh.co.kr) 및 방문접수를 통해 하면 된다.

전북대병원은 수기공모 중 우수사례 대상자에게는 전북대병원 종합검진권을 부상으로 시상할 예정이다. /김민근 기자

# 우리동네 무인주차장 어디에 있을까?

주차하고 구경하고 무인주차장에 주차하면 시간도 절약되고 편리합니다.

[전주시 무인주차장 안내]

- 서부신시가지 도청옆**  
전주시 완산구 흥산북로 75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노송천 주차장**  
전주시 노송여울2길 108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덕진광장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덕진광장로 3 (239-2562)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서부신시가지 농협중앙회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북로 53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서부신시가지 다은병원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2길 5-12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실내체육관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권삼득로 308 (251-1264) (연중무휴) 4,000원 기본(30분):500원, 추가(15분):250원
- 서부신시가지 KB은행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1길 4-13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